



9월,  
스리랑카 이야기  
10th batch, 활동보고서  
2013.9.6 - 2013.9.30, Kallar



10기 스리랑카 팀 단원소개  
9월 일정  
주요 활동 보고  
그 외 활동 보고  
느낀점  
준용이 공간

목차

WE ARE RAONATTI!



솔지 (스시, 짐리)



준용 (칭총)



지수



규홍 (키콩)

## Sep, schedule

SUN	MON	TUE	WEN	THU	FRI	SAT
1	2	3	4	5	6 출국! 	7 현지시각 새벽 이시 콜롬보 공항 도착!
8 근처YMCA호텔 투숙	9 Kallar로 출발!	10 Kallar Y orientation	11 환영식^^ 9월 스케줄조정 회의	12 cooking class! 도서관청소, 회의	13 cooking class! 종교시설방문, 회의	14 회의
15 마을 영어선생님과 만남, 회의	16 타밀어수업 아피스쿨 영어교실 시작! 회의	17 타밀어수업 cooking class 아피스쿨 회의	18 준용 단원이 아프 다!!!! 회의	19	20	21
<div style="background-color: #4a86e8;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활동 중단, 그러나 건강하게 퇴원^^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4a86e8;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준용 단원 바티칼로와 1명원으로 이송                 </div>		
22	23	24	25 Nursery school 도와주기 아피스쿨, 회의	26 YMCA 청소 Sports day 참석 회의	27 타밀어수업 cooking class 아피스쿨, 회의	28 니랑가간사님과 대 화, 회의
29 칼무네 방문! 필요 한 물품 구입 회의	30 도서관 홍보도구 제작 아피스쿨, 회의 태권도수업 홍보					



주요 활동 보고

Atti School  
Library Project  
End Poverty campaign

# Atti school

- Atti School이란?

칼라Y에서 실시하는 무료 방과후 수업 프로그램이며, 월-금요일까지 매일 실시된다. 과목은 현재 영어, 태권도, 세계지리수업이 개설되었다. 또한 대략 16주정도의 수업가능 일수를 반으로 나누어서 학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 영어수업(매주 월/수/금, 9월 16일 첫 수업)

영어는 4개의 반으로 나누고 제일기초반인 A class(알파벳/파닉스)는 준중단원, B class(기초 단어)는 솔지단원, C class(기본 단어 및 문법)은 규홍단원 그리고 D class(기본 회화)는 지수단원이 맡았다.



## Atti school

처음에 수업계획을 각 별로 짜고 수업 하루 전날에 칼라Y의 어린친구들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홍보했다. 하지만 홍보를 하면서 주의 집중이 어렵고 홍보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추후의 홍보에는 방법이 달라져야 됨을 느꼈다. 16일 첫 수업에는 미리만들어진 Level test지를 가지고 4개의 반으로 분반하였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보니 원래 계획했던 수업의 수준보다 학생들의 수준이 일치하지 않아서, 수업수준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했고, 무론 수업인 만큼 날마다 학생들의 출석의 편차가 굉장히 컸다. 또한 수업공간의 문제로 한 반은 야외에서 수업을 해야 했다.



## Atti school

### - 태권도수업

9월 24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여러 사정으로 10월 1일부터 수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그래서 수업 전날인 9월 30일, 태권도복을 입고 시간가랑 홍보를 진행했다. 타밀어로 방그(오세요!), 쿵푸일레이(쿵푸아니에요!), 가라테일레이(가라테아니에요!)를 외치면서 태권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수업홍보를 진행했다. Indra 간사님은 태권도가 인기가 좋다며 영어수업을 하루 줄이고, 태권도 수업을 주 2회하자고 요청했다. 하지만 우리는 당장에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하였고 10월 1일 첫 수업후 주일에 2번하여 학기 만에 끝을 낼지, 아니면 1번하여 2학기 내내 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 Atti school

- 세계지리수업(매주 목요일, 9월 24일 시작)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첫 시작은 사정상 실시하지 못하게 된 태권도 수업을 대체하여 24일 화요일에 수업을 열었다. 칼라Y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국이 어딴는지 아니? 스리랑카가 어디 있는 줄 아니? 라고 물어봤을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대략적인 세계지리 수업을 하기로 구상하였다. 대륙과 대양, 그리고 각 대륙별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계획하고 있다.

첫 수업을 해본 후 아이들의 집중 정도가 확연히 갈리는 수업이었다. 또한 빔프로젝터가 고장나서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수업진행에 어려움이 있었고 정기적으로 동역을 도와줄 사람도 필요함을 느꼈다.



# Attī school

아띠스쿨 홍보에  
열심인 아띠들^^



첫 영어수업! Level test 중인 아이들



# Library Project



## 왜 도서관 일까?

9기는 칼라Y의 문제점이 사람이 모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사람을 모으는 공간의 창출'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 사업을 시작했다. 우리 팀 역시 다른 어떤 공간보다 유익하기도하고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를 위한 공간에 가장 부합할 거라 생각되었다. 원래 도서관으로 사용될 공간은 예전에는 상점이 있었던 공간이었다. 하지만 여러 문제로 그 공간은 방치되어 진지 오래였다.

# Library Project

- (1) 도서수의 부족 : 도서의 수는 꽤 되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전공서적과 교과서 등이 대부분이었다.
- (2) 독서환경의 문제 : 일단 창문이 하나도 없는 밀폐된 공간이라 채광이 부족하고, 도서관을 단 하나의 백열전구로만 밝히고 있었다.
- (3) Indra 간사님의 개관시기 문제 : 우리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2달이라 생각하고 11월 초에 도서관개관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Indra간사님은 더 빠른 개관을 원했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리고 시기를 조절하였다.

## 문제해결 가능할까?

- (1) 도서수의 부족 : 라온아띠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도록 일단은 외부적인 도움보다는 내부(Kallar)내에서 연대하고 주민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했다. 그래서 10월 2일부터 18일까지 약 3주간 Library Project Event 실시하기로 했다. 이 Event는 아침과 저녁 2번 실시하기로 했으면 책과 기부금을 모으는 행사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준비에 들어갔다.
- (2) 독서환경의 문제 : 칼라Y에 창문과 전구 설치를 건의했고, Indra간사님도 전 기수부터 제기했던 문제라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해주겠다고 만하고 9월 내내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그리고 가능하다고만 할뿐 언제부터 공사를 해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 Library Project



도서관 사업 홍보중!

# Library Project

도서관 홍보 도구 제작



## End Poverty campaign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의 End Poverty campaign 주간을 맞아서 campaign 구상을 9월 동안 진행하였다.

### -Poverty?

campaign 구상 전에 우리끼리의 Poverty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 필요했다. 그래서 Poverty가 물질적인 금전적인 문제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적용되고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도출했다.



## End Poverty campaign

- 처음에는 칼라의 물문제와 청년일자리 문제를 주제로 하였다. 칼라는 현재 대부분의 가정에서 정수되지 않는 우물물을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이 문제를 접근했으나 Indra가산님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문제이기에 제외하기로 했다.
- 청년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칼라의 현실이고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많은 주민들이 공감하는 문제였다.  
  
특히 고급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많은 주민들은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우리의 힘 만으로는 어려운 문제였기 쉽지 않은 문제이기에 보류하였다.



## End Poverty campaign

그래서

- (1) 도서관 개관사업과 연계한 campaign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식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도 하나의 Poverty임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 (2) 칭찬 campaign을 구상하였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싱할라-타밀의 문제를 공부했다. 그 내용은 타밀족은 사회생활이 현재도 어렵고 소외 받는 민족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곳 칼라가 타밀지역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campaign을 해보자고 의견을 나누었다. 하지만 이곳의 여러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 동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도 있었다. 또한 이 문제를 접근하기에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가 많다는 점에서 쉽게 할 수 있는 campaign이 아니었다. 그래서 campaign의 방법은 유지하되 campaign의 이유를 바꾸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만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검은색 피부로 못생겼다고 하며 한국과 자신들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개발도상국이라고 단정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점들을 campaign과 연결하기로 하였다.



그 외 다양한 보고

NCYSL orientation  
Kallar YMCA orientation  
지역주민과의 만남/지역탐사

타미울 요리 교실

타미울어 교실

종교시설방문

Folk High School 아침 체조

## NCYSL orientation

NCYSL(National Council YMCA of Sri Lanka) 사무총장님과 니랑가 코디네이터의 주최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 우리는 스리랑카에 오게 된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각오를 갖고 왔는지 라온아띠의 역할은 무엇인지 소개했다. 총장님은 NCYSL과 스리랑카에 대한 소개(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를 약 3시간 정도 설명하시며 무엇보다 “현대문명의 이속함을 내리놓고 Kallar 현지에 동화될 것”을 강조하셨다.



## Kallar YMCA Orientation

YMCA호텔에서 출발한지 9시간 만에 칼라에 도착한 우리는 다음날 아침 칼라Y Indra간사님으로부터 오리엔테이션을 받았다.

칼라 YMCA 아티스스포츠단 어린이들의 격한 환영과 함께 시작된 오리엔테이션은 YMCA 시설 및 프로그램 소개 정도로 간단히 끝났다.



## 지역주민과의 만남/지역탐사



칼라Y 전 이사장님, 마을 영어선생님 등 다양한 직업의 주민들과 대화하며 지역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더불어 칼라Y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된 시간이었다.



## 타미를 요리 교실

매주 2회 점심은 타미음식에 대해 배우고 시식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뛰어난 요리실력의 강사님 덕분에 고품격 홈메이드 타미푸드를 즐기고 있다.

### 강사 프로필

이름 : 와산티

나이 : 28살 딸을 두고 있음

거주 : 아피집 바로 옆집

경력 : 타미음식, 서양음식 등 다양한 조리실력 보유

뜨개질 등 다양한 가사능력 보유

특기 : 높은 음역대로 "지수~" 부르기

아피들 별명부르기(나랑가, 킹콩, 칭충)



## 타미ళ어교실

매주 3~4회 코클라라지 칼라Y 이사장님과 인드라 코디네이터로부터 타미ళ어를 배우고 있다.  
하지만 24개나 되는 글자와 어려운 발음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



# 종교시설방문

칼라지역은 절대다수인 힌두교를 포함해 소수의 기독교, 천주교로 이루어져 있다. 이 날 우리는 힌두사원과 천주교 성당, Methodist 교회를 방문했다.



## Folk High School 아침 체조

스리랑카YMCA가 관리하는 Folk High School에서 스리랑카 북부에서 온 15명의 학생들과(18살 정도) 아침체조를 같이 해줄 것을 요청 받았다.

울산Y 국내훈련에서 배운 태권도 몸풀기 동작을 가르치며 학생들과도 가까워지고 가벼운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



## 느낀점

### 솔지

(다른 팀원들은 할말이 많은가 보다...)

재미있다! 그럼에도 물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살아본 적은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첫 달이라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땀망땀망한 큰 눈을 가진 아이들과 친구가 되는 일도 너무나 즐겁고 우리의 프로젝트는 여전히 어렵지만 희망은 있다!!

### 지수

9월에 대한 나의 느낌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정반대' 라는 단어를 쓰고 싶다. 7월 한달 간의 국내훈련과 8월의 '쉬'를 통해 나는 내내 나를 비우는 훈련을 해왔다. 욕심을 비우고, 기대치를 낮추고, 마음을 계속 비워가는 훈련을 스스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봉사에 대한 나의 '열정'까지 비워버린 것 같다.

편안함을 넘어 백지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하고자 했던 내게 9월은 마치 폭풍처럼 몰아치는 '쉬 없음'의 연속이었다. 내가 예상했던 것들은 모두 하나하나 정 반대의 모습으로 내가 들이닥쳤다. 한 달이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서 숨 틈 없이 흘러가버린 일주일' 처럼 느껴진다. 내 열정을 되찾고 싶다. 열정과 신념, 그리고 의지로 땀땀 뭉친 내가 되고 싶다. 기대치는 낮추되, 열정은 드높이는 훈련. 이 곳에서 할 수 있을까? 9월을 정신 없이 보면 내게 주어진 숙제인 듯 하다.

## 느낀점

### 귀환

9월은 수많은 변화와 문제들에 적응하는 시간이었다. 정전, 단수를 포함해 현지 기후, 생활습관 등에 익숙해져야 했다. 그러던 중 YMCA가 요구한 팍팍한 스케줄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현지에 도착한지 주일이 되자 곧바로 아띠스쿨, 도서관 개관준비 등 수없이 많은 일을 요구 받았다. 산적한 과제로 인해 우리는 주말을 포함해 매일 저녁 2시간 가까이 회의를 하며 지냈다. 간단히 일을 처리하기에는 요구 받은 일의 양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오후 5시 이전에는 YMCA, 이후에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하루하루가 이어졌다. YMCA가 요구하는 9월 스케줄에는 지역사회를 방문하며 마을사람을 만나는 일정이 거의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현지에 대해 알아가야 할 시간들은 YMCA의 일을 처리하며 미루어지기만 했다.

칼라에서 의 첫 달은 기준에 9기가 했던 프로그램을 이어나가는 과정이었다. 라온아띠가 장기프로젝트인 만큼 이전기수가 해놓은 프로젝트를 이어나가는 것은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더불어 우리만의 색깔을 낼 수 있는 활동과 리서치가 필요하다. 10월은 남은 4개월의 활동을 단순히 YMCA가 아닌 칼라전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더 깊숙히 현지로 들어갔으면 한다.

## 준용이 공간

### 34번 와드의 추억

\* 와드(Ward)란? 우리나라 병실의 호수가 있듯이 스리랑카병원체계에서 병실을 지칭하는 말이다.

#### <“땡기검사 좀 해주세요. 제발”>

19일 도저히 참다 못해 병원을 갔다. 30도가 넘는 날씨인데도 너무 추워 점퍼를 입고도 몸을 사정없이 떨었다. 입원수속이 진행되었다. 다음날 땡기가 우려 된다며 바로 더 큰 Batticaloa병원으로 후송이 결정되었다. 바로 34번 와드의 추억이 시작된 순간이다.

일단, Batticaloa병원은 정부운영병원이다. 모든 진료비가 무료이며 침구류와 환자복 등이 지급되지 않는다. 제공되는 것은 의료서비스와 몸을 간신히 눕힐 수 있는 철제 침대 뿐이다. 하나의 와드에는 50여개의 병상이 있고, 환자가 더 많이 생기면 침대를 계속 추가한다. 바닥에는 피 묻은 솜들이 널부러져 다니고 침대 사이에는 누군가에게 놓여졌을 주사기도 버려져 있었다.



## 준홍이 공간

고열은 주기적으로 계속되었다. 너무나 힘들어서, 의사에게 “help me, please”를 연발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괜찮아, 괜찮을거야”로 되받아쳤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피검사를 했다. 날이 지나도 몸 상태가 좋아 지지 않아서, 당장 Dengue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열이 6일 이상 되어야 검사를 해줄 수 있다며, 계속 거부했다.



병실의 사람들은 나와 킹콩의 일거수 일투족 하나를 신기해 했다. 화장실 가는 것도 수건을 들고 얼굴을 닦는 것도 말이다. 어떤 사람은 내가 힘없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을 몰래 찍기도 했다. 실습 나온 의대 학생들은 몰려 들어서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었다.

## 준용이 공간

### “준용, 너는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거야?”

드디어 고열발생한지, 6일이 지났다. 병원에서의 시간도 5일이나 되었다. 땀기열 검사의 결과는 음성이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땀기 걸려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5일이었다. 하지만, 땀기가 아니란다.

약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6일째부터 고열증상이 사라졌다. 참으로 웃긴 것이, 그렇게 아플 땀 스리랑카!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살지 못할 것 같았는데. 몸이 좋아지니 생각도 바뀌었다.

조금 상태가 좋아지니 많은 간호사와 의사들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 “무엇을 하러 왔어?” “어디서 왔어?” “어디가 아픈거야?” 등등... 기분 좋게 모든 것을 대답했다.

그리고 한 간호사는 한국병원과 이곳의 병원이 많이 다르냐고 물어봤다.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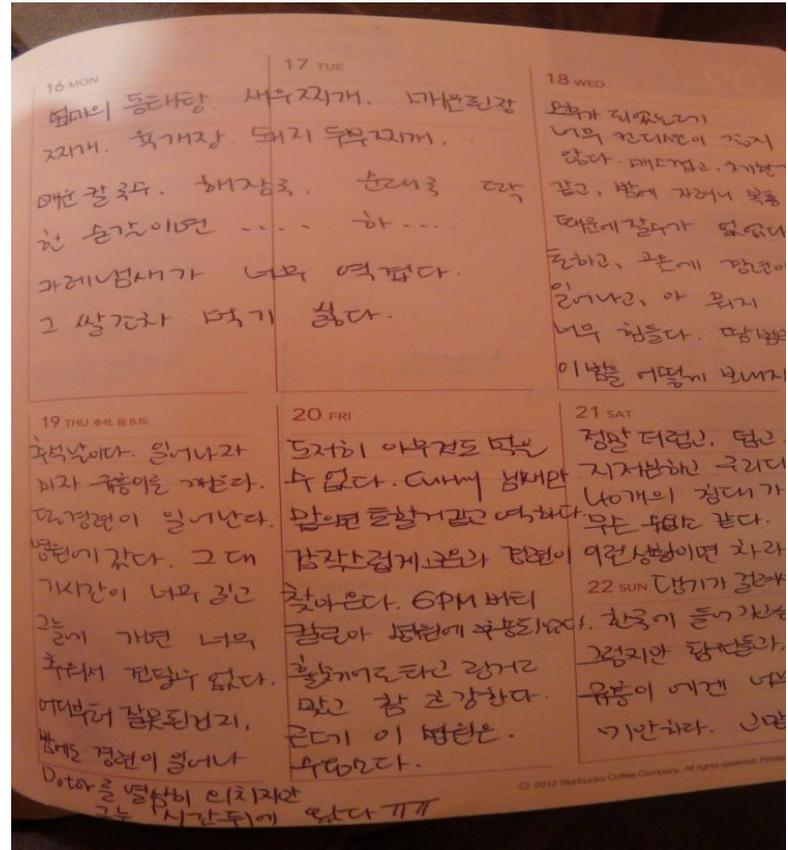
# 준용이 공간

“정말 많이 달라, 한국은 환자가 우선이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준용,  
여기서 너는 서비스를 못 받았다는 거야?”

“응, 솔직히 말하면 서비스를 받은 것 같지 않아. 하지만 몇 일 동안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너무 감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대답하고 질문한 건 잘못했어. 나는 이곳이 한국의 병원과 같다고 생각했었나봐. 스리랑카인데도...”

퇴원을 하기 위해 집에서 가져왔던 침구류와 여러 물건들을 정리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았다. 있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어서 빨리 나가고싶었다. 그리고 바로 퇴원하였다.



## 준용이 공간



하지만, 다시 칼라에서 살면서 여러 생각이 떠올랐다. 이곳의 사람들에게 Batticaloa 병원에 갔었다고 하면, 그 병원은 이 지역의 최고의 병원이라고 말한다. 당연히 한국에 비하면 최고는 아니다. 하지만 이곳의 상황, 현실 속에서는 이것이 최고이고 이 병원이 희망인 것이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의 6일 동안 모든 것을 한국에 계속 비교했다. 의사는 부르는 바로 와야 되고, 침대는 전자동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라온아피가 되려고 했는지 잊고 있었다.

6일간, 34번 와드의 추억은 아직 추억은 되지 못했다. 나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고 고민하게 했다. 하지만 남은 4개월 동안 스스로의 답을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6일간의 병원생활도 하나의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

고맙습니다 -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간병해준 킹콩 / 우리 없이 일주일 용감히 잘 살아준 짐미, 지수 / 많이 걱정해준 인드라 간사님, 저스틴, 이사장님, 아롤, 교회목사님, 산디쌤, 바티칼로아Y식구들 / 한국Y 아나동민간사님 / 그리고 엄마아빠우리가족